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신앙의 골든타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 3:11)

전반기 순방학 안내

기간: 7월 9일(주) ~ 8월 20일(주)

2023 순 전도행사

와 보라!

초청자 작성기간: 6월 25일(주) ~ 7월 9일(주)

순 '새가족의 날'	2023.8.20(주) ~ 9.3(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새가족 초청	2023.9.8(금)
새가족 초청 교구모임	2023.9.10(주)

사랑부 봉사자 모집

발달장애 성도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사랑부 교사

내용: 찬양·율동, 행정교사

시간: 주일 10:30~12:30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2. 사랑부 여름수련회 헬퍼

날짜: 8월 14일~15일

장소: 양평 숲속의아침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충현교회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 자세한 사항은 본지 4면을 참조

주차안내

본당과 제2교육관 사이 도로에 주차를 삼가주세요.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

주차장(선교관←→1교육관 본당 뒷마당) 통제 안내

1. 7월 13일(목) 18:00 ~ 7월 15일(토) 18:00 (영아, 유아, 유치)

2. 7월 20일(목) 18:00 ~ 7월 22일(토) 18:00 (유년, 초등)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부서	일정	장소
영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치부실
유년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유년부실
초등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초등부실
중등부	7월 23일(주일)~25일(화) 오전 10시 30분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7일(목)~29일(토) 오전 9시	충현기도원

지난 주일(7월 2일) 설교 되새기기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5-7)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에 담긴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인하여 이사야서를 읽어나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에는 감사하지만,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이사야서가 슬쩍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쉽고, 깊이 묵상하다보면 책장이 넘어가기 어려운, 매우 심오한 책인 이유입니다.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두 가지 회복사건 중 첫 번째인 출애굽 사건은 죄의 종노릇에서 속량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구속을 뜻합니다. 두 번째인 바벨론 포로사건은, 한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기에, 넓은 차원에서 회복 즉 이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날 종말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리딩 지저스 영상은 방대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6장), 위로의 시작(40장), 고난 받는 종의 노래(53장)라는 세 부분으로 요약합니다.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 세대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며, 10분의 9가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았더라도 그로부터 불릴 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되리라 하셨습니다. 총 66장의 이사야서 중 1-39장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변곡점이라 불리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40장 이후에는 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권수와 동일한 스물일곱 장에서 전달하는 위로의 주요 메시지는 '땅 끝까지'와 '고난 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땅 끝까지 이루어지며,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고난 받는 종'입니다.

고난 받는 종의 노래

'고난 받는 종'에 관한 노래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 장인 이사야 53장은 성찬 때에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하며 징계와 채찍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떠올릴 때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고난 받는 종이 예수님이심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며,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자 모세와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왜 끌려가서 털이 깎이는 양처럼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한 사건이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행 8:26)"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큰 열매를 거둔 빌립을 성령께서 이동시키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외교사절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내시(고관)였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행 8:32-33)"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행 8:35)"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 받는 종'이 이사야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빌립의 설명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큰 깨달음과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어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

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 42:1-4)" 고난 받는 종이 예수님이심은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12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 1-4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종이 되셔야 했던 이유

이민 목회시절, 선교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동경의 도시박물관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통제와 놀림이 있는 일본 사회를 보며, 문득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싸워 외적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다 준 이순신 장군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심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영웅과 예수님은 비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뿐이지만, 성경은 고난 받는 종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된 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종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저 우리와 단순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상처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와 완전히 결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면, '그'가 채찍을 맞는다 하여도 우리가 맞지 않게 될 뿐이며, 우리는 그저 아프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온전히 결합되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결속되는 새로운 경험, 이전보다 더 깊은 경험이 일어나게 되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Isaiah 53:5-7)

Rev. Kyu Sam Han

The Book of Isaiah is composed of two messages of 'judgement' and 'restoration'. Some people would express it is difficult to read the Book of Isaiah due to the messages about judgement contained in it. It's because we are thankful for the words pointing out our mistakes, but we feel uncomfortable in the image of God who punishes our wrongdoing. On the other hand, the message about restoration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heart-throbbing. That's why the Book of Isaiah is so profound a book, that is regretful for us to read roughly, and also difficult to turn over the pages while meditating on it deeply. Exodus, the first of the two events of restorations in the Old Testament, means the redemption from bondage of sin, which means to be delivered from personal sins. The second restoration event, in broader terms, Babylonian captivity, means an apocalyptic restoration that will take place at the end of the world because a nation was exiled in captivity and brought back. Isaiah who saw the vision responded to the calling of the Lord. God said 'this wicked generation will be judged.' God also said the judgment is not the end, and though nine-tenths were destroyed and only a tenth remained, the nation would be surely restored through these remnants called stumps, Chapter one to thirty-nine among 66 chapters of the Book of Isaiah are talking about judgement, after chapter 40, which is called the turning point of the Book of Isaiah, beginning with the word, 'comfort my people', mainly messages about restoration appear. The core messages of comfort delivered in the twenty-seven chapters, which are the same as the number of books in the New Testament, are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the suffering servant'. The restoration of God is accomplishe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the important person for achieving the work is a 'suffering servant'.

The Song of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s the core song of songs about the suffering servant, and also the word encountered in Communion. When we are reminded in Communion that the person punished and stricken is Jesus, grace is more full in us, but in the time of the prophet Isaiah,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suffering servant was Jesus. Jews at that period could not but have doubt about why the Messiah had to suffer, why a great king David or a great leader like Moses had to be carried to be afflicted and silent like a sheep before its shearers. The event that can solve this inquiry appears in the New Testament.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road—the desert road—that goes down from Jerusalem to Gaza". The Holy Spirit moved Phillip who produced great fruits of evangelism in Samaria to meet one person. It was the very Ethiopian eunuch, (an important official) who visited Jerusalem as a diplomatic envoy and was going back to his home country. "This is the passage of Scripture the eunuch was reading: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its shearer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Acts 8:32-33a). The Bible he was reading on the way back home was Isaiah 53.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Acts 8:35). Ethiopian eunuch gained a great sense of enlightenment and confidence of heart that 'the suffering servant' appearing in the Book of Isaiah is not Isaiah, or not any other, but Jesus by the explanation of Philip and was even baptized.

"Here is my servant, whom I uphold, my chosen one in whom I delight; I will put my Spirit on him,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He will not shout or cry out, or raise his voice in the streets.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snuff out. In faithfulness he will bring forth justice; he will not falter or be discouraged till he establishes justice on earth. In his teaching the islands will put their hope."(Is 42:1-4). Jesus himself recognized the suffering servant is Jesus. According to Matthew

12, the Pharisees, pointing to Jesus who performed many miracles, asked, 'Who are you?' To this, Jesus answered by quoting Isaiah 42:1-4.

The reason why Jesus had to be the suffering servant.

When I ministered at an immigrant church, I ever visited a museum of the city of Tokyo when I visited Japan as an itinerary of mission work. Looking at Japanese society with control and oppression, I suddenly had a thankful heart to Admiral Yi Sun-sin, who fought against, put out the Japanese enemies as a representative of our country, and brought peace to our country. But Jesus to have been representative of us was more than that. It is difficult even to compare a hero who appeared to solve the shortfalls of a country or an individual with Jesus. It's because the one who solved the problem of sin which we cannot bear is Jesus.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v.5). What we can obtain when someone was stricken with a whip in place of us is to feel no pain, but the Bible says we are 'healed' by the suffering servant having been whipped. I hope you accept with faith that we all received the same grace as we are healed from an incurable disease. If so, why did Jesus have to be the suffering servant? We should remember that Jesus suffered in order to be truly connected to us and to be a whole one body, not simply to make a simple relationship with us. We should realize that we could be healed by Jesus' being whipped and wounded because we became one body with Jesus. We could be out of sin because Jesus was crushe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1Pet 2:24-25). The apostle Peter says, when Jesus bore our sins on the cross, he was completely bound together with us. It is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by faith', which is emphasized in Romans. Because we are connected to Jesus, we are justified through Jesus' righteousness being imputed to us. If Jesus and we are not one body, we will not be whipped even though 'he' is whipped, nor do we feel pain. However, the Bible clearly proclaims we are healed by 'his' wounds. My beloved everyone, are you completely united with Jesus? Because Jesus bore the cross, Jesus was completely united with us, and his amazing power could appear within us. Because 'he' was whipped, we are healed. We, who are like lost sheep, have returned to 'Him,'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our souls. Those who are united with Jesus should return to Jesus. The path through which we can return is always open in Jesus. I hope in the Lord that a new experience of being completely united with Jesus, the experience which is more profound than before will take place.

영역·이울의

충현교회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번호인식 차단기 설치 및 운용>

도입취지

교회 앞마당 사역의 일환으로 교회 앞, 뒷마당 주차장을 개방하였지만 다음의 이유로 주차관리 시스템(번호인식 차단기 설치, 운용)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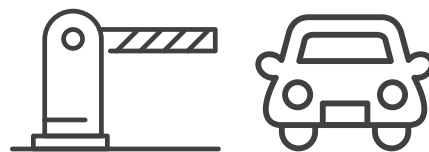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장기주차, 차선외 주차, 화단 후면주차 등으로 주차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회 주변의 섬겨야 할 이웃들이 아니라, 주야를 가리지 않는 교회 주변 업소 관계자들의 불법적 주차가 빈번히 발생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배려 없는 주차공간 사용과 함께 교회내 흡연, 담배꽂초 투기, 쓰레기 방치, 선교관 1층 화장실 막힘 등의 피해를 주고 있고, 직원들의 통제를 거부하고 충현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주차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올바르게 상식적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계획

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집회 및 특별 행사시 전면개방
2. 주중 교회 출입 성도님들은 사전 차량등록 필요
3. 외부 예약 방문자는 미리 차량번호 확인 입력하여 자동 입차
4. 미 예약 방문자는 차단기 인터폰으로 담당자 연결하여 확인 후 입차
5. 카페드림 이용자는 도보로 출입하도록 안내

차량등록 및 차단기 설치 계획

1. 7월 9일(주)~16(주): 전교인 차량등록 신청(교구 및 부서, 엑셀파일로 사무국 제출)
2. 번호인식 차단기 설치진행 (공사기간 10일)
3. 7월 셋째주: 시범운영
4. 7월 넷째주: 충현 주차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제

충현 찬양 페스티벌

찬양페스티벌 본선 진출팀

[녹도니] [윤지현] [이지현]

청년2부

브릿지

청년1부

[로덤] [마하나임] [SAY]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미녀6총사] [Boast Worship]

12교구

선교위원회 청년연합팀

[본선] 2023년 7월 21일(금) 오후 7시30분 | 충현교회 본당

첫 발을 내 밟는 통일선교 사역

제1기 통일선교사역자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탈북민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통일선교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2023년 6월 3일, 10일, 17일 3주 3회의 강의를 통하여 사역자 훈련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 훈련을 위한 강의는 최준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며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재인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단행본을 토대로 북한 선교의 이론적 이해, 탈북민 사역의 실제, 다양한 통일·북한선교 사역과 실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통일 전문사역자이신 뉴 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님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민 교회와 협력 사역과 북한·통일선교 기도사역의 필요성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1기 통일선교사역자 훈련과정에 88명이 수료했으며 이를 계기로 충현교회 통일선교는 매달 기도회를 통하여 통일 비전을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온 통일인(탈북민)과 같이 동역하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하며 민족 복음화에 더욱 정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잊고 있었던 처음 북한 선교 사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보다는 '미리 오신 선교사'라는 직함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막연히 도착한 한국에서 탈북민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삶과 어떤 성취를 이뤘고 있을까? 아니 혹시라도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때는 북한을 중요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통일로 가는 듯한 착시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통일보다 양립을 원하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된 복음의 나라를 원하신다. 하나 된 복음의 나라가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시기를 바래서 순교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다 죽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지금은 '예수님을 섬기면 죽이는' 형제이면서 원수의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인간의 모든 경륜과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수십 년을 거쳐서 보고 겪었다. 이런 시대적인 모순과 대립의 현실을 박차고 '제1기 통일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충현교회가 통일 사역에 기지개를 켜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다. '제 이웃이 탈북민에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앞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예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본다. '제1기 통일 사역자 훈련'은 탈북민들을 통해 이미 와버린 통일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아주 시의적절한 훈련이었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통일에 관해서 보다 실감 나게 접근하고 토론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2교구 정찬혜 집사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배웠다. 어린 시절, 통일연구원에서 탈북민을 만나 북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당시 한반도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고 합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이 아팠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사회생활에 매여,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다. 탈북민 역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데,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간 것 같다. 처음 간호사를 꿈꾸었을 때, 의료인으로서 북한선교를 마음에 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강의를 통해 탈북민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느꼈다. 가장 인상 깊게 배운 점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려면, 그들과 만나야 한다는 것' 이었다. 찾아보니, 내가 살고 있는 성동구 주변에는 하나센터가 없고, 서울 동부 하나센터가 송실대 입구역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교회나 뉴 코리아교회,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돕고 싶다. 정착 도우미 활동은 따로 봉사활동이 없는지 궁금하다. 다음 강의 토론시간에는 '직장인임에도 탈북민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청년부 김수아





안동 송일교회 동역교회 전도지원 사역 후기

- 6월 23일(금) ~ 6월 25일(일) -

작년 7월 22일 안동 송일교회로 처음 동역교회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해외 선교는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동역교회전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과 같은 팀원들이 같은 교회로 동역교회 지원 사역을 가고자 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저를 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여러 차례 거절 하였으나 권면하시는 집사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 두 분이 모두 저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시고 교회 활동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라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함께 동역해본 경험으로 모든 분들의 성품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작년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진행하려 했습니다. 허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숙박을 제공해 주셨던 동역교회 김 집사님이 교회와 분란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 팀의 숙박을 거절하였습니다. 더욱이 총 인원 20명 내외의 교회에서 김집사님 가족이 7명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숙식을 위한 기도, 교회의 분열을 막아달라는 기도, 동네 분들이 교회의 분열을 비난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 역시 성령님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팀원이 모일 때마다 분열하지 말고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교회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떠난 집사님을 설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열 앞에서 침체될 뻔 했던 송일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중현교회가 동역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안성용 안수 집사

인원이 몇 안되는 작은 교회인데 주축이 되던 권사님 가정이 작년에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언제 사탄이 틈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권사님은 작년에 봤던 믿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분이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강박해진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늘 틈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 꼭 잡고 끌어주심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 오고 가면서 믿음 좋은 권사님의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본을 보이시는 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저의 남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믿는 자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선 집사

안동 송일교회로 내려가기 전 몇 년간 경험한 바 유, 불교와 종교의 영으로 고착된 곳이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려갔다. 9명이 3팀으로 나눠 우리 팀 3명은 폐가가 많고 인적이 없는 심산유곡 유곡리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한 마사리 이곳은 마을회관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골수 불교 신자 할머니 한분이 우리의 전도를 늘 방해하고 회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송일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것이었다. 마을 회관에 계신 5분 할머니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복음을 제시 해도 대장 할머니 눈치 보며 우리의 전도에 마음빗장을 걸고 거부했다. 함께 동역한 송일교회 집사님도 간증하며 전도해도 완악하였다. 그러나 매해 이미용에 초청되어 오셨던 할머니 한분이 "너들은 인생이 공허하지 않나 교회 한 번 와보라"며 그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전도지원에 이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기쁜 맘이 있었다. 다음날 세족식 때에는 이미용으로 교회에 초청해 응해 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발을 씻어드리고 로션, 양말을 신겨드리며 발을 꼭 잡고 맛사지 해드리니 여지없이 복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분에게는 요 3:16 찬양하며 복음 전하고 사연 들으면서 또 목발 짚으시는 할머니는 다친 환부를 보여 주실 때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또 한 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분은 위암 3기로 항암 6차라는데 절망적인 얼굴 표정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고 구원받으셔야 천국 가신다. 사는 동안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묵묵히 받아들였다. 우리 전도팀이 모여 합심으로 영혼구원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상숭배에 매몰된 지역주민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찾는 역사 인도해 주시길 지금도 기도한다. 주일날 8명 예배하는 교회에 초청 잔치에 총 33명 예배드렸고 우리 팀의 특별찬양, 율동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율동하며 기쁜 교제시간 되었다. 우리 팀원들 기도로 화평한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성용 팀장을 비롯한 8명 모두 전도에 열심히 특심으로 함께 전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잠시 다녀온 송일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로 흥왕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백광희 권사





6교구 동역교회

인제 부평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 부평교회는 1980년 세워져 43년 동안 지역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4개 마을에도 교회가 없어 그 곳까지 기도 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불교와 유교로 똘똘 뭉쳐 교회 나가는 분들을 께박하는 상황입니다. 인근 부대 908장병들이 30년 동안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이후 현재는 잘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으로 이 곳 부평교회에서 목회한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고 2명을 더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23년에는 우리 부평 교회가 6교구 동역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더 잘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충현교회와 6교구 여러분들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제 부평교회 담임 이종만 목사 -



부평 교회 사역과 비전

1.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
2.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자
3.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4.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5. 마을 복음 전파로 예수 마을 선교 공동체로 만들자
6. 탈북자 훈련시켜 북한 통일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자



부평 교회 기도 제목

1. 908부대 장병들이 하루 속히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림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2. 부평교회에 속해있는 부평리 마을 120가구 약 200명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3. 주위 교회가 없는 4개 마을 <관대리, 신평리, 남전리, 정자리> 복음화 되도록
4.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5. 6남매가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잘 자라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6. 탈북자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총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총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2023년도 하반기 회계교육

일 사: 2023년 7월 23일 시 간: 16:30~18:00 장 소: 제1교육관 404호
지참서류: 2023년도 예산편성표 대 상: 각위원회 및 산하부서의 회계, 부서장 또는 부감(위원회 간사)

2023년 각위원회 및 산하부서 하반기 정기감사 (2023년 1월~6월)

제출시기: 7월 16일~8월 27일 제출장소: 감사위원회 701호(동쪽 엘리베이터 이용)
제출서류: 1) 2023년도 조직도 2) 2023년도 사업계획서 3) 2023년도 예산편성표
4) 2023년도 시산표(1월~6월) 5) 2023년도 현금출납부(1월~6월)
6) 2023년도 영수증(1월~6월) 7) 2023년도 예산청원서(1월~6월)

만들린 연주대 대원 모집

- 1. 악기: 만들어진, 만돌라, 만도첼로, 클래식 기타
- 2. 수요예배 찬양 담당(수요 예배 전후 연습)
- 3. 문의 흥애경 권사(010-7102-1569)

7월 정기 대회

일 사: 7월 9일(오늘) 찬양예배 후

7월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사: 7월 19일 수요예배후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55	김지원	영아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63	김경열	기본과정	
2	1164	김영자	기본과정	김충식
3	1165	노경민	기본과정	김명성
4	1171	장철수	기본과정	
5	1174	남경숙	기본과정	김미연
6	1175	양윤정	기본과정	
7	1176	이은영	기본과정	
8	1181	이현주	기본과정	장정윤
9	1182	장윤정	기본과정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167	장정숙	기본과정	박태선
2	1168	김호원	기본과정	박태선
3	1177	김향란	기본과정	
4	1178	오예지	기본과정	
5	1179	표민관	기본과정	김영임
6	1180	권윤정	기본과정	김영임

별 세

- 1. 조삼현 타교집사(조영종 집사·조아름 집사의 부친·조천영 집사의 장인·이운아 집사의 시부, 창년3부) / 1일 별세, 3일 장례
- 2. 민명순 타교권사(남혜원 집사의 모친·이병노 안수집사의 장모, 9교구) / 2일 별세, 5일 장례
- 3. 김재명 은퇴장로(2교구, 김완주 성도의 부친, 8교구) / 2일 별세, 5일 장례
- 4. 김복주 성도(한명자 권사의 남편, 6교구·김현성 집사의 부친, 12교구) / 3일 별세, 5일 장례
- 5. 김만중 은퇴집사(나순희 은퇴권사의 남편·김태훈 성도의 부친·양수경 성도의 시부, 10교구) / 5일 별세, 8일 장례

예배 담당(7/12~7/16)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7/12	수요 I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리라! (겔 20:33-38) 이성환 목사	박성덕	최희경
7/14	금요일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1-11) 한규삼 담임목사	박영환	
7/16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통일도 언약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겔 37:15-28)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문진호 윤준식	김열환 김세종 한홍연
	주일찬양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빌 3:10-14) 이다현 목사	신경철	장형길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7/10~7/16)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0(월)	전영재/윤인준	렘 2:29-37	10교구
11(화)	한규삼/김철남	렘 3:1-18	전교인
12(수)	김승래/차복근	렘 3:19-4:4	전교인
13(목)	박영환/곽현구	렘 4:5-18	6교구
14(금)	박동진/최계열	렘 4:19-31	2교구
15(토)	신경철/신경철	렘 5:1-9	전교인
16(주)	윤성복/윤성복	렘 5:10-19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일 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회 강사: 신경철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5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12:20~13:30(에스라) 12:40~13:40(아볼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행정위원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성서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재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환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정영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